

구역:

이름:

<p>5월 6 월요일</p>	<p>시편 1편-6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편) <input type="checkbox"/></p>	<p>*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제 우리는 4주에 걸쳐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많은 시를 남긴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 아삽, 모세를 비롯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시인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시편에 간단한 음률을 붙인 찬양만을 하나님께 올리자고 했을 정도로 시편은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시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깊은 간구,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비난 등 성도가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묵상은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이제 유명한 시편 1편을 펴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시편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 보겠습니다.</p>
<p>문제</p>	<p>“무릇 의인들의 길은 ()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은 망하리로다”</p>	
<p>5월 7 화요일</p>	<p>시편 7편-12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8편) <input type="checkbox"/></p>	<p>*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라고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 역시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성도의 괴로움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시편 7편부터 12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조의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나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탄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p>
<p>문제</p>	<p>“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p>	
<p>5월 8 수요일</p>	<p>시편 13편-18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6편) <input type="checkbox"/></p>	<p>*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전사이자 훌륭한 통치자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3편부터 18편까지 여섯 편의 시편은 전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부르짖거나, 세상의 악인을 향해 한탄하는 등 성도가 겪음 직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p>
<p>문제</p>	<p>“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이 나를 교훈하도다”</p>	

<p>5 월 9 목요일</p>	<p>시편 19 편- 24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3 편) <input type="checkbox"/></p>	<p>* 영광의 왕이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23 편을 읽을 것입니다. 19 편부터 24 편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저마다의 운율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19 편, 성도를 향한 축복을 기원하는 20 편, 하나님이 왕을 지키시기를 기원하는 21 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간구와 탄원의 시인 22 편, 온 세상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24 편까지 모든 시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묵상하면 좋습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처럼 기쁘게 노래합시다.</p>
<p>문제</p>	<p>“여호와와 나의 ()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p>	
<p>5 월 10 금요일</p>	<p>시편 25 편-30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7 편) <input type="checkbox"/></p>	<p>* 우러러 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고백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며 또한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아름다운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시편 25 편부터 30 편까지는 우리가 예배와 각종 모임에서 부르는 많은 노래의 가사가 되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편의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시편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특히 25 편부터 30 편까지는 탄원시보다는 감사시와 찬양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험난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p>
<p>문제</p>	<p>“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p>	
<p>5 월 11 토요일</p>	<p>시편 31 편-36 편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34 편) <input type="checkbox"/></p>	<p>* 주님께 피하라: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1 권(1- 41 편) 은 의인과 악인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사울과 대적들을 피해 다니며 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가 순수한 분노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한 분이요,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이 계속 선포되도록 기도합시다.</p>
<p>문제</p>	<p>“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에서 건지시는도다”</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분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